

보호자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 19로 마음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일과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염관리를 위하여 그리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별희 제한이 벌써 11개월이 지나 2020년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보고픈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여 보호자들의 섭섭함과 아픔을 잘 알고 있기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두렵지만, 다행히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고 마음을 나누며 잘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자녀와 단절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족을 덜 그리워하실 수 있게 생활의 활력소를 즐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전염병이 종결되어 어르신과 가족분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어 아쉽지만 2021년에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연말들이 다 이루어져 각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0. 12. 29

은혜마을 사촌이 원장 올림